

중국 영화포스터에서 나타난 이미지 분석 -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image in China Movie Poster - Cultural Revolution period (1966-1976)

리쿤, 오치규*

충남대학교 대학원, 충남대학교*

Li Kun, Oh Chigy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영화포스터는 영화 고유의 홍보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포스터디자인의 발전은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반영이다. 본 논문은 중국 문화대혁명시기의 영화포스터에서 그 시대의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사회 현상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매개체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영화포스터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한 장의 평면에 영화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변화가 최우선 영향을 주는 데 문화계이다. 본 논문에서 1966년~1976년 중국문화대혁명시기의 영화포스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런 동란시기에 영화포스터가 당시 시각문화 연구의 유용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대혁명시기의 영화포스터에서 나타난 시각이미지를 통해서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문화대혁명 시기의 영화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무려 17년 동안 제작되어온 대부분 영화들은 불과 몇 편의 전쟁영화를 제외하고 이유 없이 공개적인 비판과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 또한 대부분의 영화 제작사들은 폐쇄되었으며, 감독, 배우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동원되어 <정치적 재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시골로 보내졌다.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을 숙박했던 숙청과 '하방'의 세월이 시작된 것이다.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江青은 그때까지 진행되어오던 중국 영화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는 독단적으로 영화 제작을 시행했다. 영화는 그녀만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부터 1973년까지 근 10년의 공백기 동안 몇 편 안 되는 '모범극样板戏'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화 제작 동결되었다.

'모범극'은 일종의 무대예술극으로 현대 경극에 발레극이 결합된 형태이다. 즉 무대 위에서 상연하던 모범극을 '삼돌출三突出'이란 원칙과 결합시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하여 영사막 위에 옮겨놓은 것이다.[1]

삼돌출이란 “인물 묘사에서 긍정적인 인물을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인물 중에서 영웅 인물을 부각시키고, 영웅들 중에서 주요한 영웅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2]

2. 문화대혁명 시기의 영화포스터

문혁 시기의 영화포스터 주로 모범극과 몇 편밖에 없는 전쟁영화의 포스터 이었지만 여기서 포스터 이미지에 제시된 사회 모순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즉, ① 민생의 모순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영화포스터와 ②정권투쟁 모순을 반영하는 영웅이미지를 나타내는 영화포스터 이다.



▶▶ 그림 1. 민생의 모순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영화포스터



▶▶ 그림 2. 영웅이미지를 나타내는 영화포스터

3. 문화대혁명 시기의 영화포스터 이미지 분석

문혁시기의 영화포스터 선명한 시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문혁 시기의 사회 모순 매우 복잡하지만 영화포스터의 선명한 이미지가 반영하고 있는 모순은 직관적이며 선명하다.

1969년 영화<대채전大寨田>, 1973년 영화<염양천艳

阳天>, 1975년 영화<남강춘조南疆春早> 영화 포스터에서 나오는 농민이미지와 1973년 영화<항구海港>, 1974년 영화<붉은 년대火红的年代>의 포스터에서 나오는 공인이미지 그리고 1975년 영화<춘모春苗>의 포스터에서 나오는 의사이미지는 그 당시사회의 주요 인군이였다.

<대채전>, <염양천>, <남강춘조>의 포스터에서 깊은 논밭과 아름다운 산수 배경으로 커다란 인물 형상을 돌출했다. 주인공 주위 성숙한 황금빛의 작물로 근경배경을 형성했다. 소박한 복장 처리와 인물 표정의 클로즈업의 대비를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돌출하고 있다. 주인공 얼굴의 만족한 웃음과 먼 곳에 바라보는 모습은 만족감과 희망의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항구>, <붉은 년대>의 포스터에서 각 주인공 일하는 장소 배경으로 주인공의 직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장을 통해서 선명한 인물 특징을 돌출했다. 주인공의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열정적인 공인 이미지를 돌출시키고 있다.

<춘모>의 포스터에서 아름다운 농촌 배경으로 커다란 주인공 앞에서 돌출했다. 농민복장을 입고 있는 주인공과 손에 들고 있는 약상자, 전혀 관계가 없는 두까지 요소는 중국 당시에 특유한 '맨발의 의사들'의 특징이다. '맨발의 의사들'(barefoot doctors)은 그 자신이 민중으로 논밭에서 일하면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했다. 순수한 웃음과 먼 곳에 바라보는 모습은 친절하고 신뢰감을 부여했다.[3]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중국 그 당시 민중에게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1958년~1960년에 걸친 대약진 운동[1958-1960년의 3년 동안 진행된 “대약진” 운동은 주요하게는 사회주의 경제대국을 빠른 속도로 건설하기 위해 진행된 경제부문의 군중운동 이었다[4]의 실패와 1959년~1961년의 대규모 식량난 때문에 민중에게 가장 근본적인 민생 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다. 1960년 중국대륙에서 약2000만 명 굶어죽었다. 이는 민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던지 모른다. 더구나 60년대부터 중국과 구소련의 외교상의 갈등이 격렬함에 따라 소련의 원조를 받지 못하는 시기였다. 민중들이 마오쩌둥이 주장한 '자력갱생'의 길을 따라갔다. 문혁 영화포스터에서 나타나는 열정적이고 자신만만한 주인공 이미지 바로 그 시기 민중들의 정신세계의 투영이며 현실적인 바람이었다.

1970년의 <홍등기红灯记>, <지취위호산智取威虎山>, 1971년의 <사가명沙家浜>, 1974년의 <평원유격대平原游

击队), <빛나는 붉은 별閃閃的紅星>, 1975년의 <봉화소년烽火少年>, <차륜고르곤車輪滾滾>, <황하소년黃河少年>, <하이샤海霞> 등은 영웅이미지 나타내는 영화포스터들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전쟁영웅을 소재로 찍은 영화는 그 당시 상영된 영화중 대다수 이었다. 이런 영화포스터에서 주로 높고 깊은 산을 배경으로 주인공과 대비를 이루는 수법을 통해서 주인공의 커다란 이미지를 돌출했다. 주인공의 정의로운 눈빛과 빨간색 복식은 주인공이 혁명전사임을 상징한다. 붉은색은 영웅적 전사의 피 흘림의 상징으로 위대한 투쟁정신과 승리를 나타내면서 고대 중국사람 좋아했던 붉은색과도 전통적 의미의 맥이 이어진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많은 영웅들을 이미지로 표현한 영화포스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중국민중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느낄 수 있다. 1961년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과 1969년 중국과 소련 국경충돌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고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민중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위기는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66년~1976년 중국문화대혁명시기의 영화포스터 이미지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문화대혁명시기의 10년 세월이 사회문화를 퇴보시켰다고 보는데 그 때 이데올로기의 통일은 다른 시기에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대혁명 시기의 영화포스터에서 나타난 이미지표현을 통해서 그 시기의 시대적 특징과 모순을 직관적이고 선명하게 이해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미지'를 문화와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조망함으로써, 지금까지 광고수단의 하나로만 여겼던 영화포스터가 1966년~1976년 중국문화대혁명시기의 시대적 가치관과 흐름을 함축한 시각자료로써 가치를 지닌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 [1] 이종희, 『중국 영화의 어제, 오늘, 내일』, pp. 38, 책세상, 서울, 2000.
- [2] 이종희, 『중국 영화의 어제, 오늘, 내일』, pp. 152, 책세상, 서울, 2000.
- [3] 김원열, 「민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대혁명: 평등 지향의 민중 혁명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3.
- [4] 최만원, 「'대약진'운동의 기원: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5.